

대안정치, 평화당 탈당 “마중물될 것”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내 제3세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민주평화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박지원, 장병완, 장정숙, 유성엽, 천정배, 김종희, 최경환, 윤영일 의원.

민주평화당 내 제3세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대안정치)는 12일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중앙당에 탈당계는 제출했으나 오는 16일자로 접수기로 했다.

대안정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희망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 작은 강물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정치는 김중희·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탈당은 대안정치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을 뺀 9명이 단행한다. 장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평화당에서 활동 중이나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탈당계가 아닌 당직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탈당계는 오는 16일에 접수되도록 제출했다. 15일을 기준으로 정당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 탈당하게 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직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탈당계 제출했지만 날씨는 16일로...“당직자들 배려” “국민 40% 중도·무당층 지지 모으는 능력 갖춰야” 유성엽 임시대표 “외부서 대표 추대되면 자리 넘길 것”

설명했다. 대안정치는 국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한 사과부터 전했다. 이들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큰 마음의 빔을 썼다. 이 빔을 갚기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는 최근 저성장, 경기침체, 양극화 등 경제위기와 북핵위기,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등 외교 현안 등을 지적하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 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

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 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는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이 온건 진보층과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달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는 외부인사를 대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사영입이 되지 않아 유성엽 의원이 임시대표를 맡고 있다.

유 임시대표는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대안정치 대표로 우리의 기본적인 취지대로 외부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추대가 될 때까지는 제가 임시대표를 맡고 추대가 되면 대표직을 넘기도록 하겠다”며 “(외부인사) 접촉하고 있고 염두에 둔 인사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아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평화당 당권과 “명분 없는 탈당은 성공 못해...사육의 정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후원회장·전당대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명분 없는 탈당 죽는 길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는 12일 제3세대 구축 세력인 '대안정치'를 구태정치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집단탈당에 대해 "구태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

시30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원외지역 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정 대표는 “오늘 탈당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무력했다. 가지 말았

어아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안정치의 탈당 기자회견에는 당원, 국민,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안정치 중 1명인 박지원 의원을 겨냥하며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분열을 막고 탈당을 막아야 할 분이 이

정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평화당에 4명이 남은 상황에 대해 “의원 숫자는 중요하지만 정국국회가 끝나고 12월이 지나면 사실 선거후보 등록이다. 4개월짜리 국회의원직이 희망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심판은 내년 4월15일 받는 것이다. 짧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걸어난 바탕 위에 평화당이 내년 제3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평화당 창당 초기 대표를 맡았던 조 배숙 의원은 “탈당사태가 난무한 것에 대해 초대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책임

정동영 “끝까지 설득했지만 무력...안타까워”

박지원 겨냥해 “분열·탈당 조장한 혐의...유감”

것을 기화하고 조정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이 분의 행태는 대표적인 구태 정치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향후 ▲선거제 개혁 등 완수하는 개혁정치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분양가 상한제 등 젊은 정치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정치 등을 실현해나간다고 전했다.

김과 무거움을 느낀다”면서도 “우리 (당권파)가 제3세대 신당을 만들자, 다 함께 가자”라는 것에 동의했다. 시기의 차이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그분들에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野 ‘조국 때리기’ 반발 맞서 與 “정치공세...사법개혁 적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지명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에 걸친 개혁을 발표했다”며 “이번 개혁은 일련의 경제개혁과 미·중 무역분쟁 등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성 임무별로 (청문회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며 “8월은 내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다.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임하는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법치주의 종언’, ‘신독재 완성’, ‘경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래래 낡은 권력기관에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 분명해 보인다고”며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숙한 청문회 문화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개혁을 두고 야당은 과도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은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개각에 대해 비난을 쏟기보다 청문회라는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지명된 각 인물이 주어진 역할을 잘 하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개각을 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만약 청문회 등 절차에서 한국당이 정치적 공세를 한다면 민대변인의 말은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 다른 의원들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 후보자에 공세를 퍼붓는 야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야당의 꽃은 국회다. 다시는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국회가 공전되도록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모욕주기나 신상 탈가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형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희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을 그렸던 사람이 조 전 수석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으로 가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인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의 조국 임명 반대와 청문회 보이콧 등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통해 한국당이 조국을 반대한다는 건 잘못하면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며 “(보이콧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은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